

화관문화훈장·신재호 동리 대상 동시 수상 동편제 인간문화재 송순섭 명창

“제자 양성해 한 무대 서는 게 가장 큰 행복”



지난 2000년 고흥 출신 운산(雲山) 송순섭(74·광주시립극단장) 명창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다. 주변에서는 이제 소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왔다. 하지만 송 명창은 “무대에서 커서 무대에서 죽는 게 최고로 행복한 소리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했지만 ‘적벽가’ 완창 무대에 나섰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가 됐다. 호방한 동편제 소리 판소리 애호가들을 사로잡은 송 명창이 최근 결경사를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았고, 한국 판소리계의 대부 동리 신재호 선생을 기리는 ‘동리 대상’(상금 1천500만원)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올해가 소리 인생 52년째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적도 많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훈장도 받고, 상도 받아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도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제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박봉술 명창 등 제 선생님을 욕되게 할 제자를 키워냈느냐 하는 점입니다. 소

리의 맥을 잇는 데는 제자를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판소리에 입문한 송명창에게는 소리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때도 많았다. 국악인 집안이 아닌, 비가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많았고 전주대사습에서 2등만 4차례 한 후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악 불모지인 부산에서 국악협회장을 하며 ‘이차돈’, ‘선화공주’, ‘공취팔귀’ 등 창작극을 무대에 올릴 때는 큰 성취감도 느꼈다. 송명창은 공대일·김준섭·김연수·박봉술 선생을 사사했다. 박봉술 선생의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를 계승한 송 명창의 소리는 호방하고 웅장한 동편제 소리의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송명창은 끊임없이 완창무대에 선다. 지난해에는 국립극장에서 ‘적벽가’ 완창 무대를 가졌고, 올 12월 31일에도 국립극장 초청으로 ‘수궁가’ 완창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솔직히 요즘에 완창 무대에 설 때는 체력도 걱정이 되고, 흑시 가사를 읽어버리지

을까 긴장도 됩니다. 지난해 ‘적벽가’ 완창을 할 때 중간에 한번 쉬고 했는데 다 마치고 나니 뿌듯하더군요. 칠십 먹은 노인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무대에는 꾸준히 설 생각이입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명창은 학교 국악교육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소리를 가르칠 때는 발음, 성조 등에 신경을 써야하는 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듯해 안타깝습니다. 저희 선생님 소리, 내 소리를 이을 뛰어난 제자를 양성하는 게 이제 저에게 남은 일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작은 무대라도 만들어서 제자들과 무대에 서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KBS국악대상, 광주시 문화예술상, 전주세계소리축제 으뜸상 등을 수상한 송명창은 (사)동편제 판소리 보존회 이사장 등을 맡아 동편제 계승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광주시립극단과 내년에는 안중근을 소재로 한 창작극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식인의 고독한 내면 풍경 독창적인 유머 서사로 표현”

동인문학상 수상 광주 출신 김경욱씨

광주 출신 소설가 김경욱(38·사진)씨가 2009년 제40회 동인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소설집 ‘위험한 독서’(문학동네 펴냄). 동인문학상 심사위원회(유종호 김주영 김화영 오정희 이문열 정과리 신경숙)는 지난해 강원도 양양에서 가진 최종심에서 김경욱씨의 소설집 ‘위험한 독서’를 올해의 수상작으로 뽑았다. 동인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옛날의 지리멸렬한 생(生)의 부정적 믿음들을 막 개시되는 자유의 노래로 어느새 뒤바뀌게 하고 있다”고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단편 ‘위험한 독서’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꿈꾸는 현대 지식인의 고독한 내면 풍경을, 세상이라는 텍스트를 읽는 화자(話者)를 통해 밀도 있는 서사로 표현했다. 김씨는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 ‘아웃사이더’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으며 소설집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베틀을 만나러 가다’ ‘누가



컷트 코메인을 죽였는가’ ‘장국영이 죽었다고?’ ‘장편소설 ‘아크로 폴리스’ ‘모리스 호텔’ ‘황금 사과’ ‘천년의 왕국’ 등을 썼다. 2004년 단편소설 ‘장국영이 죽었다고?’로 한국일보문학상을, 2008년 ‘99%’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수상자 김씨에게는 상금 5천만 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군 신진면 대별마을 5명의 여성들이 최근 신진면 백화마을 이순덕 할머니 덕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김치만찬을 전달하고 있다.

윤창준 바르게살기 광주동구협 부회장 총리상

오는 21일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2009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서 윤창준(사진) 광주 동구협의회 부회장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윤 부회장은 20여년 동안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동구협의회에서 활동하며 청소년 선도활동 및 방방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람나눔 희망 릴레이봉사단 사랑의 집고쳐주기’, 기초질서·거리교통질서 캠페인 순회지도(100회), 국토청결운동 캠페인(90회)에 참가하고 꽃동산꽃길가꾸기 운동을 주도하는 등 봉사활동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그는 광주동구청장 표창과 광주시장 표창,



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 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을 뿐인데 너무 과분한 상을 줬다”며 “항상 소외된 이웃을 돕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박항구 전 광주일보 부국장 별세

박항구 전 광주일보 부국장·파리 특파원이 19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58세. 장성 출신인 박 전 부국장은 지난 1976년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에 입사한 후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 파리특파원과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1985년 미주리대학교원 석사과정 중이었다. 또 1999년에는 광주·전남 언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



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유족은 부인 최희경(삼무중교사)씨와 준영(전남대 의대생), 준선(대학생)씨 2녀. 발인은 21일, 빈소는 전남대병원 장례식장(062-220-5049)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할머니들의 ‘물래한 선행’

강진 이연진씨 등 5명 5년간 이웃봉사

한 마을에 살고 있는 60~70대 여성 5명이 남몰래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강진군 신진면 벌정리 대별마을의 이연진(64), 김영심(63), 김영희(63), 김영삼(71), 김영초(61)씨. 이들은 5년 전인 지난 2005년부터 매월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해 준비한 김치 등 밑반찬 등을 전하고 집안 대청소와 빨래를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은 이연진 할머니가 우연히 군청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5인의 아름다운 선행이 더욱 빛나

는 것은 그동안 이웃들을 비롯한 본인 가족들조차도 모르게 이웃봉사를 펼쳐 왔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은 먼 사투소 보건진료소에서 주변 10여개 마을 가운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정보를 얻어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어가고, 먼 거리는 차편을 이용해 사랑을 전했다. 이웃들에게 전하는 밑반찬은 회원들이 재배한 무, 배추, 고추, 마늘 등과 대별 앞바다에서 직접 채취해온 굴로 만들고 멸치볶음과 파래무침 등은 매달 5천원의 회비로 마련해 오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자랑스런 光高人 선정

유영진 재경강진중·농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7일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수여하는 ‘2009년도 자랑스런 광고인’으로 선정됐다.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출신의 유 부회장은 광주고와 조선대 법대를 거쳐 감사원 총무과장, 공보담당관, 청와대 공직기강담당국장, 감사원특별조사국장 등으로 활동한 뒤 현재 삼성그룹 상경경영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동강대, 요양원서 발마사지 봉사



광주 동강대학교 발마사지 동아리 학생 30여명이 최근 동구 계림동 보금자리 요양원을 찾아 노인들에게 발마사지 봉사를 했다. 동강대 노인복지학과의 주부 학생들로 구성된 이 봉사동아리는 매달 요양원 등을 찾아 노인들에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동강대 제공)

동하테크, 컨설팅 보고회·비전 선포식



동하테크(대표이사 문병대)가 최근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컨설팅 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스템 통합(SI) 전문업체인 동하테크는 이번 컨설팅에서 회사 내부 및 외부의 환경과 기회와 위기, 강점과 약점 분석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김명순씨 장남 양재영군 신홍수(평동주유소·백암주유소 대표)·서덕택씨 장녀 신희양=24일(토) 낮 12시30분 웨딩의전당 폴립버스 2층(노블레스홀) ▲정근채·임화주씨 차남 형준(인천세무서)군 김동현(전 전남일보 사 진부국장)씨 장녀 도희(신창초교사)양=24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김승환·임종식(동천어집)씨 장남 동희군 민경남씨 장녀 수정양=24일(토) 오후 1시 웨딩의전당 금호30층(아시안홀) ▲유병호(남순천의원 원장)·이순복씨 아들 재철(전공수련의)군 김용하(광주교 교장)·노명란씨 딸 미나(약사)양=24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

선홀

▲양태승·박판익씨 장남 정일(전 광주일보 업무국 사원)군 심종순·이미례씨 오녀 승희양=25일(일) 오후 1시30분 삼부지구 예술의전당 2층(로즈마리홀) ▲우상순씨 장남 지훈군 오태홍씨 장녀 미희양=25일(일) 오후 1시 5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2층(크리스탈홀) ▲최영욱·선후자씨 막내 상주(광주롯데백화점 홍보팀장)군 박래선·김안숙씨 장녀 진영양=25일(일) 오전 11시2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곽용연·박순철씨 장남 상호군 최현주(광주시 환경복지국장)·김숙희씨 장녀 헤미양=11월1일(일) 오후 3시30분 서울병원종합청사예식장, 피로연 23일(금) 오후 6시 예벌루션웨딩컨벤션 2층(아펠리아홀)

동창·동문회

▲재광 전주 영생교 월례회(회장 이종욱)=20일(화) 오후 7시 광산구 월계동 청서골. 062-971-7717. ▲광주보건대학사회복지과 동문회(회장 김운기)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한국도지사공사빌딩 11층(삼성생명) 016-611-2858. ▲학다리중·고 총동문회(회장 양한모) 체육대회=25일(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우천시 체육관) ▲재광의신중학교 총동문 가족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OB백주 광주공장 운동장. 017-511-4040. ▲광주 남초등학교 동문회(회장 허선호) 및 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모교운동장. 011-602-9019.

향우회

▲재광보성읍 향우회(회장 김선주)=27일(화) 오후 6시30분 북구 임동 페르마. 062-525-5566. ▲재광곡성군 향우회 월례회=28일(수) 오후 7시 무등파크호텔 가는 길 안내. 018-620-0900.

중친회

▲창원황씨 광주·전남중친회(회장 황선진) 강원도 철원 세장원 세향참례=24일(토) 오전 8시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출발.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지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열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 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부음

▲박항구(전 광주일보 부국장·파리 특파원)씨 별세 최희경(삼무중교사)씨 상배 준영(전남대 의대생)·준선(대학생)씨 부친상=발인 21일(수)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017-605-1331. ▲권중복씨 별세 태호(광주교검 검사, 전 춘천검사장)·미자(대성여상교사)·화자(회사원)·태룡(㈜치코 이사)씨 부친상 김동선(대성여중교사)·박종경(연합개발 본부장)씨 빙부상=발인 22일(목) 충북 청주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043-298-9200.

▲주옥자씨 별세 박희상(안산미프리아 산부인과)·희영·희미·희애씨 모친상=발인 2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성종근씨 별세 하근·하진·하영씨 부친상=발인 20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문귀남(전 대동교 교장)씨 별세 인성(조대병원 내과)·인석·인숙씨 부친상=발인 21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김남중씨 별세 영수·종호·수미·혜영씨 부친상=발인 20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신진국영 프릿드 (신) 현대중앙상조 가임폰트 1566-4499